

# 陰陽의 語源과 陰陽論의 起原에 關한 考察

尹暢烈\*

## 1. 緒 論

河圖와 洛書가 出現하여 宇宙의 時間과 空間의 秩序와 萬有生命의 變化가 兩儀의 原理에 根源을 두고 있음이 啓示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變化의 原理를 陰陽이라는 用語로써 설명한 것은 훨씬 뒤인 春秋時代에 이르러서이다.

이에 論者는 陰陽이라는 글자의 語源 語意를 살펴보고 陰陽이라는 글자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萬物의 存在와 變化原理를 代表하는 用語로 쓰이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文獻을 통해 陰陽論의 起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陰陽의 語源과 語意

陰陽의 語源은 畵易에서 비롯한 듯 하다. 먼저 畵의 來源에 대해 살펴보면 《說文解字》(後漢의 許慎著 字叔重?~121年)의 雲部에서 “黔은 雲覆日也니 從雲今聲이라 畵은 古文이니 黔省이라(解釋: 黔은 구름이 태양을 가린 것이니 雲과 今이 합하여 이루어진 形聲字이다. 畵은 古文이니 黔에서 雨字가 省略된 형태이다.)”<sup>1)</sup>라 하였다. 이 내용은 小篆으로 黔(흐릴 음)이라는 글자가 먼저 생기고 이에 雨字가 省略되면서 古文<sup>2)</sup>으로 畵이라는 글자가 생겨났다고 말하고 있다.

段玉裁(1735~1815 清代人 字若膺 號硯北居士)는 이 部分의 注에서 “今人陰陽字를 小篆作黔易하니 黔字는 雲覆日이오 易字는 旗開見日이니 引申爲兩儀字之用하니라 今人作陰陽은 乃其中之一端而已라 黔字는 今僅見大戴禮記文王官人篇과 素問五常政大論이라 古文雲은 本無雨이니 非省也라 陰字는 從此라”<sup>3)</sup>

지금 사람이 쓰는 陰陽이라는 글자는 小篆에서

는 黔易으로 되어 있다. 黔字는 구름이 해를 가린 것이고 易은 깃발이 태양아래에서 펼쳐지는 모습인데 의미를 확대하여 兩儀를 나타내는 글자로 사용하였다. 지금 사람이 陰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중의 한 단서이다. 黔字는 지금 《大戴禮記·文王官人篇》과 《素問·五常政大論》(伏明之紀에 沈黔淫雨라는 말이 있다.)에 겨우 보일 뿐이다. 古文에서 구름을 나타내는 글자는 云이라 하여 본래 비 雨字가 없었으니 許慎이 黔에서 雨字가 省略되어 畵의 글자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陰字는 畵字에서 나온 것이다.

여기서 段은 古文에서 구름을 나타내는 글자는 雲이 아니고 云이 쓰였고 따라서 畵도 古文으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글자라 하여 雲今에서 雨가 省略되어 畵이 이루어졌다는 許慎의 주장에 반대하였다. 이는 古文이 小篆以前에 사용된 글자라고 볼 때 小篆인 黔에서 古文인 畵이 나왔다고 주장한 許慎의 입장을 반대한 段玉裁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小篆과 古文이 지역적인 차이에 의해 달리 사용되었다고 본다면 일단 陰陽

2) 《說文解字》에는 모두 9353字的 글자가 실려있다. 標題字는 小篆으로 되어 있는데 秦篆이라고도 하며 秦始皇이 文字를 統一할 때 쓰인 書體를 가리키고 漢代에까지 通用되었다. 一般的으로 篆書라 하면 小篆을 指稱한다. 《說文》에는 500餘字的 古文이 또한 重文(異體字)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古文經중의 書體 가운데 小篆과 다른 書體를 指稱한다. 이는 壁中書에서 나온 글자로 春秋戰國時代때 鄒魯(或齊)의 儒生들이 사용한 文字인 듯하다. 《說文》에는 또한 重文으로 籀文 220字가 보이는데 籀文은 大篆이라고도 하며 西周末期에서부터 BC220年 秦始皇이 李斯의 주장을 받아들여 文字를 統一할 때까지 秦나라에서 쓰여진 文字를 말한다. 大篆과 小篆은 시대적 차이에서 연유한 것이고 古文과 小篆은 지역적 차이에서 연유한 것이다.

3) 說文解字注 上同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

1) 許慎著 段玉裁注 說文解字注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575

의 最初의 形態로 古文에서는 畵易이라는 글자가 사용되었고 小篆에서는 黔易이라는 글자가 사용된 듯 하다. 畵에 사용된 云에 대해 살펴보면 《說文》에서 “云은 象回轉之形이라(云은 回轉하는 모습을 본뜬 象形字이다.)<sup>4)</sup>”라 하였고 段은 注에서 “二는 蓋上字니 象自下回轉而上也라(二는 오를 上字니 아래로부터 回轉하면서 올라가는 것을 본뜬 것이다.)<sup>5)</sup>라 하였다. 이는 氣運이 돌아서 올라가 구름이 된다는 意味라 할 것이다. 이어서 夨에 대해서 살펴보면 夨은 夨과 7이 합쳐진 글자로 夨은 夨의 意味로 한곳에 모인다는 뜻이 있고 7은 及(미칠 급)의 뜻이 있으므로<sup>6)</sup> 사람이 모이는 곳에 시간에 맞추어 가다의 뜻으로 ‘이제·지금’의 意味를 갖는다. 이상의 內容을 綜合하여 보면 畵의 全體의인 意味는 구름(云)이 한군데 모이고(合) 미쳐 이르러(及) 태양을 가리고 있어 흐린 상태라고 解釋할 수 있다.

다음으로 易자의 來源에 대해 살펴보면 《說文》에서 “易은 開也니 從日一勿이라 一曰飛揚이오 一曰長也오 一曰彊者衆貌<sup>7)</sup>(易은 연다는 뜻이 있고 日一勿이 合하여 글자가 이루어졌다. 易은 휘날리고 펼쳐진다는 뜻이 있고 기른다는 뜻도 있으며 굳센 것이 많다는 뜻이 있다)”고 하였다.

從日一勿에 대해 살펴보면 日은 태양이고 一은 지평선이고 勿은 깃발이다. 특히 勿(기이름 물)은 古代의 大夫와 士가 백성을 불러 모을 때 세우던 旗로 三游(古代에 깃발 아래에 드리운 장식물)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勿의 右筆 7은 자루를 나타내고 丿은 三游를 나타낸다. 段玉裁는 勿을 쓴 것은 “取開展意”<sup>8)</sup>라 하였다. 이상의 內容을 綜合하여 易字의 뜻을 살펴보면, 아침에 해가 지상에 떠올랐을 때 기가 펼쳐지면서 떠오르는 태양을 맞는 것이니 氣象이 지극히 發揚한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段玉裁의 이러한 解釋과 달리 王筠(1784~1854 字貫山 號菴友 山東安丘人. 평생 說文의 研究에 몰바쳐 說文釋例 20卷 說文解字句讀 30卷 說文繫傳校錄 30卷을 남김)은 說文釋例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竊謂 從一者는 地也 오 勿은 非字니 祇象易氣鬱勃溼地而出之形이라<sup>9)</sup>(내 생각으로 살펴보면 一은 땅을 나타내고 勿은

非라는 글자이니 단지 陽氣가 鬱滯되었다가 터져 나와 땅을 비추면서 나오는 모습을 본뜬 것이다)”라 하였다. 이에 대해 徐復觀은 “王氏가 勿을 非字로 본 것은 탁견인데 이는 해가 처음 떠오를 때의 햇살을 象徵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象易氣鬱勃溼地而出之形’이라고 해서는 안되니 易字를 만들 때 아직 이러한 관념이 없었기 때문이다.”라 하였다.

이상의 內容을 통해 畵易의 최초의 의미는 日光의 遮斷과 開放을 나타내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으로 陰陽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說文解字》에서 “陰은 闇也니 水之南 山之北也라 陽은 高明也라(陰은 어두운 것이니 물의 남쪽, 山의 북쪽을 음이라고 한다. 陽은 높고 밝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陽에서 “山南曰陽 水北曰陽”이라고 하지 않은 것은 陰의 對가 되므로 省略한 것이다.

물의 남쪽과 山의 북쪽에는 태양이 비치지 않아 陰이라 하고 반대로 山의 남쪽과 물의 북쪽(山南水北)은 태양이 잘 비쳐 陽이라고 한 것은 畵易이라는 글자에 阜(β)傍을 덧붙여 만든 글자로 日光의 地上에서의 向背를 가지고 뜻을 취한 것이다.

이를 요약하여 王筠은 “黔易者는 天地之氣也오 陰陽者는 山水之南北也라”<sup>10)</sup>하였다. 그러나 뒤의 구절은 說明이 타당하지만 앞 구절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햇빛이 가려져 있느냐 빛나고 있느냐에 따라 形成된 畵易의 氣運을 天地의 根源 元氣를 意味하는 天地之氣로 나타내는 것은 타당성을 缺如한다. 그러나 이후 여기에서 孳乳(파생의 뜻)된 陰陽이 兩儀를 나타내는 대명사가 되었으므로 一面 이해할 수 있는 側面도 있다. 段玉裁는 “夫

5) 說文解字注 上揭書 p.575

6) 東亞漢韓大辭典 李家源外2인監修 서울 동아출판사 1982 p.90

7) 說文解字注 p.454

8) 說文解字注 p.454

9) 徐復觀 中國人性論史先秦篇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4 pp.510~511

10) 王筠 說文解字句讀 北京 中華書局 1988 p.456

4) 說文解字注 上揭書 p.575

造化舍易之氣는 本不可象이라 故黔與陰 易與陽은 皆假兩日山阜하여 以見其意而已라”<sup>11)</sup>고 하였다.

이후 陰陽이라는 글자가 行世하면서 黔易(舍易)이라는 글자는 사라지게 되었는데 舍易과 陰陽의 글자는 모두 태양의 빛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造字되었음을 看過해서는 안 될 것이다.

### 3. 古代文獻에 나타난 陰陽

#### 1) 詩經 書經 周易에 나타난 陰과 陽

현존하는 中國 古代의 最初의 文字인 甲骨卜辭나 西周時代의 金文 가운데에는 陰陽이라는 用語가 나타나지 않는다.

梁啓超(1873~1929年)는 孔子와 老子 以前의 글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詩經 書經 儀禮 易經의 卦辭와 爻辭 등인데 이 책속에는 현대적인 意味의 陰陽概念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고증한 바 있다.

《詩經》에서 陰字를 말한 곳이 8군데인데 그중 4곳은 陰字와 雨字를 連用했고 <邶風>의 “嘒嘒其陰”(嘒: 음산할 예, 날씨가 음산함이어)의 陰은 天氣(날씨)를 말한 것이며 <秦風·小戎>의 “陰韜塗糞”(韜: 가슴걸이 인, 塗: 도금할 옥, 속에 끈을 매 되 이음새에 도금을 하였으며) 및 <豳風·七月>의 “三之日納於凌陰”(納은 藏也오 凌陰은 氷室也라. 三陽의 날에 즉 正月에 얼음을 氷室에 넣나니)의 두개의 陰字는 어둡다는 뜻으로부터 來原했으며 <大雅·桑柔>의 “既之陰女”(之는 往也오 陰은 覆也라 女는 汝의 뜻이다. 이미 가서 그대를 庇護해 주려 하였는데)의 陰은 의미를 확대하여 覆蔭(덮어서 蔭護하다)의 陰의 뜻이다. 또 《詩經》에서 陽字를 쓴 곳이 18處인데 주로 山水의 方位, 日光, 溫暖 등의 뜻으로 쓰이고 있으며 <大雅·公劉篇>에 “相其陰陽”이라 하여 유일하게 陰陽이라는 글자를 連用하고 있는데 이는 山의 南北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sup>12)</sup>

《書經》에서는 陰字와 陽字를 말한 곳이 각각 세 군데인데 陰陽依居, 華陽黑水 惟梁州, 岷山之陽南至于陰(以上은 禹貢에 보인다.) 惟天陰鷲下民(洪範에 보인다.) 乃或亮陰 三年不言(無逸에 보인

다.) 모두 日光의 向背와 여기서 파생된 의미로 쓰이고 있다.

가장 의아한 것은 莊子가 <天下篇>에서 “易은 以道陰陽이라”고 까지 한 《周易》에서 <卦辭·爻辭>중에서 오직 中孚·九二의 爻辭(鳴鶴이 在陰이 어늘 其子和之로다)중에서 단 하나의 陰字만이 쓰여지고 있고 역시 그늘진 곳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儀禮에서는 陰이나 陽이라는 글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論議의 對象이 되지 않는다.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西周以前에 있어서 陰陽이란 글자는 주로 밝고 어두움, 춥고 따뜻함 등의 自然界의 氣候나 山의 南北의 位置를 나타내는데 사용되었을 뿐이지 後世에서와 같이 결코 어떤 깊은 意義를 表現하고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sup>13)</sup>

#### 2) 國語의 陰陽概念

西周末期와 春秋時代에 이르러 陰陽의 概念은 三經의 내용에서 보다 더욱 발전하게 되는데 國語(孔子와 같은시대 사람인 左丘明이 지었다함. 春秋時代 周 魯 齊 晉 鄭 楚 吳 越 8國의 歷史를 기록하고 있다.)에서는 陰陽을 陰陽之氣, 天地之氣 혹은 氣候變化의 原理로서 說明하고 있다.

“古者에 太史가 順時觀土하니 陽瘳憤盈하면 土氣震發이라 …… 陽氣俱蒸하면 土膏其動이라 …… 陰陽分布하면 震雷出滯라”(太史는 春秋時代때 史官과 曆官之長이었다, 觀: 볼 맥 視也, 瘳: 熱病 단, 熱氣가 盛하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陽氣盛의 뜻이다. 憤盈은 積滿也라 震은 動也오 發은 起也라 蒸은 升也라 膏는 潤也라 陰陽分布는 春分날에 晝夜가 等分되는 것을 말한다. 滯는 不動 不流通의 뜻이나 여가서는 冬眠했던 動物을 말한다.)

옛날에 太史가 때를 살피고 흙의 상태를 관찰하였으니 陽氣가 盛하여 쌓여서 가득차면 土氣가 움직이고 發動한다. …… 陽氣가 전부 上升하게 되면 土氣는 潤澤하게 된다. …… 陰陽의 氣가 같아지는 春分의 때가 되면 천둥이 치고 冬眠했던 動物들이 活動을 시작한다.<sup>14)</sup>

위의 내용은 虢文公이 宣王(在位 B.C.828~782)

12) 徐復觀 上揭書 pp.511-513.

13) 顧頡剛 古史辨(第二冊 上篇) 서울 景文社 1978 pp.347-348.

14) 薛安勤 等 注解 國語譯注 長春 吉林文化出版社 1991 pp.19~23

11) 說文解字注 p.731

이 籍田에 親耕하는 禮를 行하지 않자 그를 諫하는 內容에 나오는 글이다. 여기에서 陰陽은 過去와 달리 크게 發展하여 氣候變化의 原理를 說明하고 있는데 氣 개념을 結合하고 있어 後世에 無形의 變化原理를 說明할 수 있는 理論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갖추고 있다. 위의 내용은 陰陽學說을 說明하는 최초의 記錄인데 陰陽의 力動性과 循環性 등을 살펴볼 수 있다.

幽王二年에 西周三川이 皆震한데 伯陽父曰周將亡矣리라 夫天地之氣는 不失其序하나니 若過其序면 民之亂也라 陽伏而不能出하고 陰迫而不能蒸하면 於是에 有地震이니 今三川實震은 是陽失其所而 鎮陰也라 陽失而在陰하면 川源必塞이요 源塞하면 國必亡이라

(三川은 涇水 渭水 洛水이다. 伯陽父는 周의 大夫였다. 蒸은 升也라 鎮陰은 陰氣의 壓迫을 받은 것이다. 在陰은 陽氣가 陰氣의 아래에 있는 것이다.)

周나라 幽王(재위기간 B.C.782~771년) 2年(B.C.781)<sup>15)</sup> 涇水 渭水와 洛水에 모두 地震이 있었다. 伯陽父가 이르기를 周나라가 장차 망할 것이다. 天地의 氣는 그 순서를 잃지 않는데 만약 순서를 어기면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게 된다. 陽氣가 아래에 潛伏되어 나오지 못하고 陰氣가 陽氣를 압박하여 陽氣가 上升하지 못하게 하면 이때 地震이 발생한다. 이제 三川이 震動한 것은 陽氣가 正常의 位置를 잃고 陰氣의 壓迫을 받은 결과이다. 陽氣가 失其所하고 壓迫으로 陰氣의 아래에 있게 되면(地動하고 地動하면) 물의 根源이 막히고 물의 根源이 막히면 나라가 반드시 망하게 된다.<sup>16)</sup>

여기서는 地震의 原理를 陰陽의 原理로 說明하고 있는데 드러난 사건을 說明하는 裏面의 理論으로써 陰陽을 援用하고 있다. 여기서는 陰陽의 對立性과 制約性 등을 살펴볼 수 있다.

靈王二十二年에 穀洛鬪하여 將毀王宮이어늘 王欲遷之한데 太子晉이 諫曰 不可니이다 …… 故天無伏陰하고 地無散陽하며 水無沈氣하고 火無災燿이니이다

(穀洛: 모두 물이름이다, 伏陰: 한여름에 나타나는 寒氣, 散陽: 한겨울에 나타나는 따뜻한 氣運, 燿: 불탈 천 불꽃을 내뿜으면서 계속 타는 모습)

周나라 靈王(周의 23代王, 재위기간 B.C 572~544) 22年(B.C 551年) 穀水와 洛水가 다투어 흘러 王宮을 헐어버리려고 하자 王이 물을 막으려고 한데 太子 晉이 말하기를 不可합니다. …… 그러므로 하늘에는 伏陰이 없고 땅에는 散陽이 없으며 흐르는 물은 潛伏하여 물건을 축축하게 하지 않고 타는 불은 災殃을 이루지 않습니다.<sup>17)</sup>

위의 내용은 陰陽을 가지고 異常氣候變化를 說明하고 있는데 陰陽의 調和性과 分容性 등의 사상이 엿보이고 있으며 五行과의 相關性도 보이고 있다.

於是乎 氣無滯陰하고 亦無散陽하야 陰陽이 序次하야 風雨時至니이다.

(滯陰: 여름에 눈과 서리가 내리는 등의 異常氣候)

이에 여름에 滯陰이 없고 겨울에 散陽이 없어 陰陽의 變化가 순서대로 進行되어 風雨가 때에 맞추어 이르게 됩니다.<sup>18)</sup>

위의 내용은 周나라 景王(周나라 24代王 재위기간 B.C 544~520年)이 23年(B.C 522年)에 鐘을 주조하려고 할 때 單穆公이 반대하자 다시 伶州鳩에게 물었을 때 伶州鳩가 音樂의 影響力에 대해서 對答할 때 나오는 말이다. 陰陽의 消長性의 內容이 보인다.

因陰陽之恒하고 順天地之常이라<sup>19)</sup>

陰陽 變化의 常規를 順應하고 天地의 常法에 順應하다.

陽至而陰하고 陰至而陽하며 日困而還하고 月盈而匡이라 古之善用兵者는 因天地之常하여 與之俱行하니 後則用陰하고 先則用陽이라 …… 後無陰蔽하고 先無陽察이라

(至는 極也라 後는 後動也오 先은 先動也라 用陰은 謂沈重固密也오 用陽은 謂輕疾猛厲也라 後動者 泰舒靜이 爲陰蔽也오 先動者 泰顯露가 爲陽察也라)<sup>20)</sup>

15) 國語는 後代와 달리 즉위년부터 재위년을 계산하므로 이에 따랐다. 後代에는 일반적으로 즉위년 다음해를 元年으로 계산한다.

16) 上揭書 pp.32~33

17) 上揭書 pp.109~116

18) 上揭書 pp.131~135

19) 上揭書 p.806

陽이 極點에 이르면 陰으로 變하고 陰이 極點에 이르면 陽이 된다. 太陽이 서쪽에서 갔다가 東方에 다시 떠오르고 달이 차면 다시 기운다. 옛날에 군사를 잘 쓰는 者는 天地變化의 常規에 順應하여 그와 더불어 함께 行動하니 戰爭할 때 行動을 뒤로 미룰 때는 陰象에 따라 신중하면서도 천천히 움직이고 먼저 움직여야 할 때는 陽象에 따라 빠르고 날래게 行動하여야 한다. …… 行動을 뒤로 미룰 때라도 陰에 가린 바가 되어서는 안되고 행동을 앞세울 때라도 너무 드러내서는 안된다.

이상의 두 문장은 모두 越語下에서 범려가 句踐에게 하는 말이다. 앞의 문장은 句踐이 즉위한지 3年(B.C 495)에 말한 것이고 뒤의 문장은 B.C 479年에 한 말이다. 여기에서 陰陽은 앞에서 氣候變化만 說明하던 內容에서 보다 더 發展하여 陰陽의 概念이 폭넓게 演變되었으며 陰陽의 轉化性에 대한 內容이 나타나고 있다.

### 3) 春秋의 陰陽概念

다음으로 春秋에 나타난 陰陽의 概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左傳 僖公 16年(B.C 644)에 다음과 같은 內容이 실려져 있다.

春에 隕石于宋이 五니 隕星也오 六鵠이 退飛하야 過宋都하니 風也러라 周內史叔與이 聘於宋하니 宋襄公이 問焉 曰 是何祥也며 吉凶이 安在오 對曰 今茲魯多大喪하고…… 退而告人 曰 君이 失問이라 是陰陽之事也오 非吉凶所生也라<sup>21)</sup>

(鵠: 물새이름 역)

봄에 宋나라에 돌이 떨어진 것이 다섯이니 별이 떨어진 것이다. 여섯 마리의 물새가 바람 때문에 뒤로 날아 宋나라 首都를 지나니 바람 때문이었다. 周의 內史 叔與이 宋나라 사신으로 오니 宋襄公이 물기를 이것은 무슨 징조며 吉凶이 어떠한가 대답하기를 이제 魯나라에는 큰 초상이 많을 것이고 …… 물러나 사람에게 고하기를 임금이 질문을 잘못했다. 이것은 陰陽의 사건이지 吉凶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양은 《詩經》時代의 陰陽으로 自然界의 氣候를 말하던 것을 계승한 것이데 陰陽之事는 自然界의 氣候失調를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人事와는 무관하므로 “非吉凶所生也”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後代와 같이 陰陽으로 天道를 말했다면 天道와 人事는 밀접하게 相關되어 “非吉凶所生也”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春秋》에서 陰陽概念의 최대의 특징중의 하나는 陰陽을 天이 生成한 六氣중의 二氣로 파악하는 것이었다. 陰陽의 본래 意味는 햇빛의 有無를 기준으로 하여 나타나는 현상이었을 뿐이고 그 자체가 獨立的인 實體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概念과 陰陽의 본래 意味에는 차이가 있다. 또 《詩經》시대의 陰陽은 前代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날씨와 관련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단지 날씨의 變化를 통해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나 날씨가 사람에게 주는 感覺-예컨대 춥다거나 덥다거나-을 표현하는 것이었을 따름이며, 그 자체가 獨立的인 存在였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春秋에서의 概念은 《詩經》時代의 陰陽概念과도 차이를 가진다. 《春秋》에는 陰陽을 天이 生成한 여섯가지 氣體 중의 두가지 氣體로서 인정하고 있다. 그것은 陰陽 자체가 이미 實體的인 存在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로 인해서 그것은 더 많은 作用과 影響을 낳기 시작하였다.<sup>22)</sup> 이와 관련하여 《春秋左氏傳》 昭公元年(B.C541)의 기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晉侯가 求醫於秦이어는 秦伯이 使醫和視之한데 曰 疾不可爲也라 …… 天有六氣하야 降生五味하며 發爲五色하며 徵爲五聲하며 淫生六疾하나니 六氣曰 陰陽風雨晦明也라 分爲四時하며 序爲五節하니 過則爲菑라 陰淫은 寒疾이오 陽淫은 熱疾이오 風淫은 末疾이오 雨淫은 腹疾이오 晦淫은 惑疾이오 明淫은 心疾이니 女는 陽物而晦時라 淫則生內熱惑蠱之疾이니 ……

(晦는 夜也라 寔寢過節則心惑亂이라 明은 晝也라 思慮煩多則心勞敝라 女常隨男故陽物이오 家道常在夜故言晦時라)<sup>23)</sup>

晉平公이 의사를 秦에 구하거는 秦景公이 醫和로 가서 보게 한데 醫和가 이르기를 病을 治療할 수 없습니다. …… 하늘에는 여섯 종류의 氣象이

21) 孔子 春秋 大田 學民文化社 1990 p.(天)461

22) 김홍경편역 음양오행설의 연구 서울 신지서원 1993 pp.62~63

23) 孔子 春秋左氏傳 서울 保景文化社 1990 p.372

20) 韋昭解 國語 大田 學民文化社 1990 p.667

있어 땅에서 五味를 生하며 五色으로 發顯되며 五聲으로 應驗되며 지나치면 六疾을 生하나니 六氣는 陰陽風雨晦明입니다. 春夏秋冬 四時로 나누어지고 五行마디의 순서를 이루게 하니 지나치면 病이 됩니다. 陰이 지나치면 寒疾이 되고 陽이 지나치면 熱疾이 되고 風이 지나치면 四肢의 病이 되고 비가 지나치면 泄瀉病이 되고 밤에 節制가 없으면 迷惑病이 되고 낮에 節制가 없으면 心病이 되니 여자는 남자를 쫓아 밤에 가까이 하는 존재이니 지나치면 內熱과 蠱惑之疾을 生하게 합니다.

여기서 陰陽은 寒煖으로 사람의 耳目肌膚 등의 感覺을 통해 接觸할 수 있는 具體的인 存在이지 感覺으로 접촉할 수 없는 추상적인 後世의 陰陽이 결코 아니다.

左傳의 昭公21年과 24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秋七月壬午朔에 日有食之하다 公이 問於梓愼 曰 是何物也오 禍福何爲오 對曰二至二分에 日有食之면 不爲災라……其他月則爲災는 陽不克也니 故常爲水라(物은 事也라)<sup>24)</sup>

가을 7월 壬午日 초하루에 日食이 있었다. 昭公이 梓愼에게 물기를 이것은 무슨 일인가 禍福이 어떻게 되는가 대답하기를 冬至 夏至 春分 秋分에 日食이 있으면 災殃이 되지 않는다……다른 달에 있으면 災殃이 되는 것은 陽이 陰을 이기지 못해서이니 災殃은 언제나 洪水로 나타납니다.

夏五月乙未朔에 日有食之어늘 梓愼이 曰將水하리라 昭子曰 旱也라 日過分而陽猶不克하니 克必甚하리니 能無旱乎아 陽不克莫하니 將積聚也라<sup>25)</sup>

(莫: 暮와 同, 이미 때가 지난 것을 暮라 한다. 또는 莫을 없을 막 그대로 보기도 한다.)<sup>26)</sup>

여름 5월 乙未日 초하루에 日食이 있었다. 梓愼이 이르기를 장차 물난리가 나리라 昭子가 이르기를 가뭄이 들 것이다. 太陽의 運行이 春分을 지났는데도 陽이 오히려 陰을 이기지 못하니 일단 陰을 이기기만 하면 대단히 甚하게 되리니 旱災가 들지 않겠는가 陽氣가 늦어 陰氣를 이기지 못한 것을 陽氣가 쌓이고 모이려고 하는 것이다.

以上の 內容은 日食의 상황을 陽不克陰이라는 陰陽의 勝負作用으로 說明하고 있다.

또 春秋左傳 昭公25년에 “氣爲五味 發爲五色 章爲五聲”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昭公元年의 內容과 相同하는 部分이다. 五味 五色 五聲은 人間生活와 관련이 있는 사물의 속성이다. 즉 春秋에 六氣가 人間生活와 관련있는 세가지의 속성을 낳는다는 인식만 존재하였을 뿐 六氣가 만물을 낳는다는 인식은 存在하지 않았다.

《春秋左氏傳》에 근거해 볼 때 春秋時代에 이루어진 陰陽관념의 發展에 대해서는 세 가지 結論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陰陽은 天地사이의 실체적으로 存在하는 六氣 중의 두 가지 성질의 氣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원래의 氣候관념으로부터 발전된 것이다. 둘째, 六氣는 사람과 관련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 하나는 직접적인 관계로 “陰이 지나치면 寒疾이 생긴다.”는 것이나 六情이 六氣에서 생긴다는 관념 같은 것이 그것이다. 다른 하나는 간접적인 관계로 六氣는 五味 五色 五聲 등을 만들어 내며, 맛이나 색 소리 등은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또 경험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六氣 가운데에서도 陰陽 二氣는 風 雨 晦明 등 네 가지 氣에 비해 좀더 추상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합리적인 상상을 하는 데 보다 유용하였고, 그 상상에 가해지는 制約도 나머지 것들에 비해 작았다. 그 때문에 그것은 많은 현상들에 대해 강력한 해석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六氣 중에서도 점차 부각되어 다른 많은 현상이나 사물들과 연관을 맺게 되었다는 것이다.<sup>27)</sup>

《國語》와 《春秋》에서 사용된 陰陽의 共通點은 모두 氣候의 變化를 說明하는데 陰陽을 援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詩經》의 寒煖의 陰陽概念을 繼承하여 發展시킨 것으로 陰陽의 語源과도 關聯되는 주요한 特徵이다.

#### 4. 陰陽論의 起源

陰陽二字의 意義를 현대적인 의미로 劇的으로 變化시킨 사람은 老子와 孔子라고 말할 수 있다. 老子는 《道德經》에서 “道生一하고 一生二하고

25) 上揭書 pp.282~283

26) 王守謙의 2인 譯注 左傳全譯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1992 p.1336

27) 음양오행설의 연구 pp.64~67

24) 孔子 春秋(人) p.254

二生三하고 三生萬物하니 萬物은 負陰而抱陽하고 沖氣以爲和라”고 하였다. 이말은 萬物은 道에서 생겨나고 萬物에는 모두 陰陽의 對立되는 屬性이 있음을 說明하는 말이다.

孔子는 《周易·繫辭傳》에서 “一陰一陽之謂道”, “陰陽合德而剛柔有體”, “陰陽之氣配日月”이라 하였고 <說卦傳>에서 “觀變於陰陽而立卦”, “立天之道曰 陰與陽이오 立地之道曰 柔與剛이오 立人之道曰 仁與義라”하여 自然界的 法則으로서의 陰陽의 의미를 기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陰陽論은 老子 孔子의 時代 즉 春秋時代의 中期에 確立된 것인가?

지금 中國의 대부분의 學者들은 春秋戰國時代以後에 陰陽論이 出現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伏羲氏가 그린 八卦의 卦象이 陽爻--와 陰爻--의 原理로 되어 있고 伏羲氏가 取象한 河圖와 禹 임금이 그린 洛書에 陰陽뿐만 아니라 五行의 原理도 빠짐없이 表現되어 있다.

우리는 어떠한 思想이 出現한 時期와 그것이 文字化되어 기록된 時期를 同一視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왔다. 河圖와 洛書 또는 八卦는 兩儀에 의해 宇宙의 變化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처음에는 剛柔 陰陽 등의 用語가 함께 사용되었으나 後世에 오면서 陰陽이라는 用語가 兩儀의 대명사로 쓰이게 된다. 따라서 陰陽이라는 用語가 使用된 時點이 곧 陰陽論이 出現한 時期라고 보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다. 대부분의 學者들은 陰陽이 兩儀의 대명사로 보편적으로 사용된 時代에 陰陽論이 나왔다고 強辯하면서 陰陽論의 起原이 男女의 生殖器에서 나왔다는 性器起原說, 枚卜의 占法에서 起原했다는 枚卜起原說 등을 주장하고 있다.<sup>28)</sup> 그렇지만 陰陽論의 創始者는 伏羲氏이며 伏羲氏께서 自然界的 變化秩序를 觀察하여 그려놓은 河圖나 八卦의 原理로부터 陰陽論이 起原하였으며 孔子와 老子가 陰陽이라는 用語를 天地變化秩序의 原理로 使用한 以後 後世에 이를 답습하여 陰陽이라는 用語가 兩儀의 대명사가 되었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

## 5. 結 論

陰陽의 語源과 語意 그리고 先秦時代의 文獻에 나타난 陰陽의 用語를 통해 陰陽論의 起原에 대해 考察한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陰陽의 최초의 表記法은 小篆에서는 黔易이라 하였고 古文에서는 畵易이라 하였다.

2. 許慎은 黔에서 兩가 탈락되어 畵이 나왔다고 하였으나 段玉裁는 畵이 본래 古文으로 쓰였다고 했다.

3. 黔(畵)의 뜻은 구름이 태양을 가려서 흐린 모습을 나타내고 易은 태양이 地平線 위에 떠오를 때 깃발이 힘차게 펴려있는 모습(段玉裁 說) 또는 찬란히 地上에 비추는 햇살의 모습(王筠 說)이라 하여 日光의 遮斷과 開放이 최초의 의미였다.

4. 畵易에서 孳乳되어 陰陽이라는 글자가 나오게 되었는데 陰은 水南山北을 가리키고 陽은 山南水北을 가리킨다. 이는 阜를 덧붙여 日光의 地上에서 向背를 가지고 만든 글자이다.

5. 孔子와 老子 이전의 冊인 詩經 書經 周易에 나오는 글에는 現代的인 意味의 陰陽觀念이 나타나지 않고 陰陽이 날씨의 寒煖을 나타내거나 日光의 向背만을 나타내고 있다.

6. 國語는 三經의 內容을 계승하여 陰陽을 陰陽之氣 天地之氣 혹은 氣候變化의 原理로써 설명하고 있는데 상당히 발전된 陰陽의 概念을 사용하고 있다.

7. 春秋에서는 陰陽을 六氣중의 2가지 實體로 인정하고 있으며 사람과 관련되어 六氣는 지나치면 病을 일으키고 인간생활과 밀접한 五味 五色 五聲 등을 생하는 主體가 되고 있다.

8. 陰陽을 現代的인 意味로 사용한 최초의 인물은 老子 또는 孔子라고 사료된다.

9. 陰陽論의 起原은 伏羲氏가 창시한 八卦 河圖 등에 起原하고 있다고 보아야만 한다.

10. 많은 學者들이 兩儀의 대명사로 陰陽을 사용한 春秋戰國時代를 陰陽論이 생겨난 時期로 잡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으로 理論이 생겨난 時期와 用語를 사용한 時期는 구분하여 파악해야만 한다.

28) 음양오행설의 연구 上揭書 pp.475~477

1. 顧頡剛 古史辨(第二冊 上篇) 서울 景文社 1978
2. 孔子 春秋 大田 學民文化社 1990
3. 孔子 春秋左氏傳 서울 保景文化社 1990
4. 김홍경편역 음양오행설의 연구 서울 신지사 원 1993
5. 徐復觀 中國人性論史先秦篇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84
6. 薛安勤등注譯 國語譯注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91
7. 王筠 說文解字句讀 北京 中華書局 1988
8. 王守謙의 2인 譯注 左傳全譯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1992 p.1336
9. 韋昭解 國語 大田 學民文化社 1990
10. 李家源外2인 監修 東亞漢韓大辭典 서울 동아출판사 1982
11. 許愼著 段玉裁注 說文解字注 서울 大星文化社 1990